

경제

SSM 개점땀 주변상가 매출 74% 감소

류정수 서구의원 '봉암동 홈플러스' 상권 영향 분석

고객 발걸음 '뚝' 매출 '반토막' ... 감소를 전국 4번째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SSM)가 개점할 경우 주변 상가의 매출이 최대 74%까지 줄어들어 결국 고사 될 것인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류정수 광주 서구의원이 발표한 'SSM 입점시, 주변상권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삼성테크스코의 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설 경우 서구 봉암동 주변 상가의 하루 매출이 최소 30만원, 최대 74%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암점(350㎡ 규모)이 들어설 경우 월세 1000만원, 평균 인건비 1500만원(10명 이상), 수도광열비 300만원, 보일러와 통신료 400만원, 투자자비 700만원(월세 1000만원을 보증금 10억 수준으로 산정하고, 점포 임대 보증금 4억원을 합친 투자금 14억에 대한 수익

률 0.5%) 등 매장 유지비용으로 매달 3900여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마진율을 최소 10~30%로 가정하면 한 달 총 매출액은 1억3000만원에서 3억9000원 이상, 하루 평균 매출액은 400만~1300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봉암점이 이 같은 매출을 올릴 경우, 주변 300m 이내 13개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류 의원은 "이들 슈퍼마켓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최소 70만~최대 200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SSM 들어 설 경우 주변 상권은 하루 30만~100만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해 결국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SM의 최근 4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인근 상인들의 매출은 50% 가량 감소했다.

광주지역 71개 슈퍼마켓을 조사한 결과 SSM 입점 전에는 하루 평균 매출액이 약 143만원이었지만 입점 이

후 68만원으로 평균 53%나 급감했다. 또 하루 평균 고객수도 299명에서 144명으로 52%나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충남(68%), 부산(63%), 대전(55%)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삼성테크스코, 광주 SSM입점 보류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과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테크스코(주)가 광주지역 내 SSM 입점 보류 의사를 밝혔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삼성테크스코는 이날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광주지역에 SSM 출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테크스코는 공문에서 "당사 대표의 사전 스케줄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며 "SSM 입점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19일 삼성테크스코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점 저지를 위한 방문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삼성테크스코의 결정은 일단 환영한다"며 "지역상권과 시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한은 기준금리 4개월만에 0.25%P 인상

가계·기업 추가 이자부담 3조 전망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실 가속화 가능성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들의 추가 이자부담이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절대 금리 수준이 낮아 가계와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린 상황에서 환율 하락으로 수출 악화 등 경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세한 가계나 한계기업들은 이자 부담에 휘둘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면서 가계와 기업들의 연간

이자부담은 추가로 3조400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돼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에 그대로 반영됐을 때 국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들은 연간 6조8000억원의 이자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부담은 가계가 1조3000억원, 기업은 5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과 예금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가정할 때 대출이자 증가분에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증가분을 뺀 수치다. 따라서 기준금리가 7월과 11월에 걸쳐 모두 0.50%포인트 인상에 따라 예금 이자 증가분을 뺀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은 3조4000억원에 이른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졌다면 1억원을 연 5%의 변동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대출이자는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월 이자 증가액은 4만 1666원이다. 이처럼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대출부실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더욱 나빠져 대출 부실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다음주 중 최종 결정날듯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고위관계자는 16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에 외환은행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건보공단 광주사옥 준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사옥 준공식이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신축 사옥에서 열렸다.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테이프절단식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아파트 분양가 9.8% 하락

전남도 평균 12.8% ↓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여파로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대비 각각 9.8%, 1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은 새만금 개발 특수로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10.6% 상승했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공급

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63만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1075만원에 비해 10.4%(112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3.3㎡당 591만원으로 지난해(655만원)에 비해 9.8%(64만원) 하락했고, 전남은 570만원으로 지난해(654만원)보다 12.8%(84만원) 떨어졌다.

분양가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대전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647만원으로 1년 전(811만원)에 비해 무려 20.2%(164만원) 급락했다.

이어 강원도 17.9%(526만~432만원), 부산 16.2%(854만~716만원), 전남 12.8%(654만~570만원), 경북 11.7%(590만~521만원), 광주 9.8%(655만~591만원), 충남 8.3%(713만~654만원), 경남 6.7%(685만~639만원)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각각 1.4%(1759만~1734만원), 1.0%(1164만~1152만원) 소폭 하락했다.

이같이 올들어 분양가가 떨어진 것은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의 적체 등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분양가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충북(30.1%)과 제주(12.4%), 전북(10.6%), 대구(9.5%), 울산(6.3%), 인천(1.0%) 등은 지난해보다 평균 분양가가 상승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상장사 3분기 매출·영업 호조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은 3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호조세를 이어갔다.

1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4개사 가운데 중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셀러를 제외한 13개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1조8697억원, 영업이익 1670억원으로 2분기보다 각각 579억원, 56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1210억원으로, 하반기(1241억원)보다 31억원 줄어들었다.

올들어 9월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조2184억원, 413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0%(6018억원), 486.7%(3426억원) 증가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3347억원 적자에서 올해 1조71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금융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띄었다. 올들어 9월까지 금호산업은 8490억원, 금호타이어는 971억원 당기순이익을 거둬며 흑자 전환했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대우에이텍도 당기순이익을 62억원(전년 동기 대비 680.2%) 끌어올렸고, 부국철강도 123억원(“ 157.5%)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적자 폭을 늘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899.13 (-14.68)
코스닥지수	503.04 (-1.79)
금리 (국고채 3년)	3.32% (-0.15)
원·달러 환율	1,129.50원 (-2.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현대건설 '우선협상'에 현대그룹

인수금액 5조5000억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16일 조선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채

권단이 현대건설 자본 매각에 성공하면 4조 원이 훨씬 넘는 매각 차익을 거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은 인수금액으로 약 5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현대건설 매각 제한 자본

(34.88%)은 외환은행(8.72%), 정책금융공사(7.84%), 우리은행(7.46%), 국민은행(3.56%), 신한은행(2.87%), 농협(2.19%), 하나은행(1.42%) 등의 순으로 나뉘고 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들 은행의 현대건설 제한 취득 평균 단가는 주당 2만원 가량이다. 채권

단이 현대그룹이 제시한 대로 약 5조 5000억원(주당 약 14만1천원)에 현대건설을 판단해 매각 차익은 약 4조 72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이 1조1800억원, 정책금융공사 1조615억원, 우리은행 1조94억원, 국민은행 4817억원, 신한은행 3883억원, 농협 2964억원, 하나은행 1918억원 등이다.

채권단은 이날 중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주)정두레 금남로5가 남산빌딩 407호 메텔포터영·호남 총판 중앙지사장 임동춘 ☎(062)224-8028	광명요양보호사교육원 전대병원 5거리 2층 일반·경리·관리·재정·주·인·주·원 원장직강, 최우수 강사진 구성 실습복 지급, 원생수시모집 ☎(062)351-9114	(유)이천고속관광 임동 무등경기장 정문 건너편 2층 국내·외 여행, 각종행사 최신형 전세버스 대표 이원주 ☎011-609-1797	대덕재가노인복지센터 전대병원 5거리 스피드빌딩 2층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돌보아 드립니다. ☎010-2833-8573	우리굽네 양산동 광주은행거리에서 GS@복남포인빌 뒤편 숯불구이 오리한마리, 오리훈채, 점심특선 오리탕, 한방오리곰탕 단체예약손님 환영, 연회석 준비 ☎(062)575-5295		
영암마트용두점 양산동 뒤 용두전기기사나 1층 청과, 이채, 정육, 수산, 공산 취급 판매 신선한 가격, 풍성한 혜택, 행복한 쇼핑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립니다. 무료배달, 희망근로자상품권 기증점 ☎(062)575-8181	똥강아지 호남동 43-2(구 태평극장 옆) 분양, 교배, 미용, 호텔, 배달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쿠폰제 실시 ☎(062)233-0755	금호상사 용봉동 용봉중A 입구 맞은편 P.C방, 노래방, 당구장, 학교 및 관공서 분식재료 전문납품업체 광주전지역 배달 S.V 대표 김성대 ☎010-4590-1112	태청복집 용봉동 용봉아울렛 옆 복욕리의 명가 태청복집 대표 최혁신 ☎(062)528-3336	본죽 윤암고기점 윤암동 문화여성병원 맞은편 전통건강죽, 영양맛죽의 명가 포장가능(사전연락) ☎(062)527-6288	신가네 손맛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광주은행 옆 불백, 주물럭, 곰장떡, 해물알탕 알밥, 돌솥비빔밥 전문점 대표 신부안 ☎(062)363-8598	(주)반도패션신안점 신안사거리 캐주얼 정장 1개의 가격에 2벌(1+1) 점장 이철호 ☎(062)514-9117
아우성 계림동 구 계림파출소 앞 남성조루 행동요법 보조기기 세계최초 특허획득 www.ausung.kr ☎010-2411-0525	동주여행사 금남로5가(구)동구청 3층 국내·국외여행, 항공권, 호텔패스 대표 주상용 ☎010-5175-7603	신포우리만두 충장로3가 28-2 최고의 맛 최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062)225-7501	입석과서석 금남로상가 13~4 청국장, 추어탕, 전통오리탕 국산콩으로 주인이 직접만든 냄새가 나지 않는 청국장 ☎(062)233-1919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대도식당 동구 황금동(구)런던역사거리 찜밥, 생선구이 생삼겹, 청국장 ☎(062)227-0584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동·서양화 매매, 무료감정 고급 표구족자 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SM스포츠클럽 광주 전지역 방문상담 성장·비만 상담 학교 생활체육 교육 ☎010-4634-6378	화필여로 궁동 35-10, 예술의거리 오곡쌈밥 전문점 대표 홍행남 ☎(062)222-7268	무진보 금남로2가 중앙헬스사우나 앞 오리요리 명가, 단체손님 환영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062)523-5292	GS25 편의점 중흥동 동부교육청 정문 옆 최고의 신선도로 최고의 맛을 제공 ☎(062)531-0306	카페피아모(광주두암점) 두암동 시외버스 정류장 옆 카페 점주 채수용 ☎(062)265-3560	활어회센터 화동동 구 세우서 사거리 각종 회전문, 단체손님 환영 대표 김한수 ☎(062)374-4900	증가집밥 월계동 무양공원 사거리 국밥류, 안주류 등 ☎(062)972-9845